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이번주 상영작 3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배경 추적

-국정교과서 516일: 끝나지 않은 역사전쟁-

자신도 모르게 마주하는 '죄'

-로마서 8:37-

아이 버리고 사라진 여친 찾기

-아기와 나-

논란의 배경 · 의미 추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논란의 배경과 의미를 추적하는 주제를 다룬 영화 세 편 '국정교과서 516일: 끝나지 않은 역사전쟁' '로마서 8:37' '아기와 나'를 11월 셋째 주작으로 상영한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상영작 '국정교과서 516일: 끝나지 않은 역사전쟁'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배경과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미래를 도모해야 하는지 여러 역사 학자들과 되짚어보는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천안함 프로젝트' 백승우 감독의 신작으로 올바른 역사의 방향성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고 있다. 제12회 파리한국영화제, 제19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로마서 8:37'은 전도사 기섭이 자신의 우상인 요섭을 둘러싼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 모두의 '죄'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신연식 감독의 신작으로 죄·믿음·회개·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목회 조직 간의 사건과 갈등을 통해 그려내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끔 작품을 그려냈다.

또 한편의 영화 '아기와 나'는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으로 결혼을 앞두고 아이를 내버려두고 돌연 사라진 여자 친구의 행방을 찾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건비행'으로 제6회 칸영화제 시네마운데이션 3등에 오른 손태겸 감독의 장편데뷔작으로 불안한 청춘의 자화상을 현실감 있게 담아냈다.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제23회 브졸국제아시아영화제 에밀기메상을 수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풀꽃시인과 함께 시를 이야기하다'

전북도청도서관, 나태주 시인 초청 북 콘서트

전북도청도서관(관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민태)은 우리나라 서정시인을 대표하는 나태주 시인을 초청해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27일 오후 7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식구로 시작하는 국민 애송시 '풀꽃'의 저자 나태주 시인의 특강 및 북 토크를 비롯해 음악공연, 시낭송, 질의응답, 사인회 등으로 120분간 진행된다.

풀꽃시인으로 불리는 나태주 시인은 시골에 살면서 시로 자연을 노래하고 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대술 아래서'로 문단에 등단, '박동리 소묘' '산촌연서'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등 38권의 시집과 '시골 사람 시골 선생님' '죽기 전에 시 한편 쓰고 싶다' 등 10여권의 산문집을 포함 총 100여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휴의 문학상' '시와시학상' '한국시인협회상' '박용래문학상' '황조근정훈장' 등 다수의 영예를 수상한 바 있다.

한국시인협회 부회장, 충남문인협회장, 공주문학위원장을 역임했다. 43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현재 공주 풀꽃문학관에서 생활하는 그는 만 72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가 당신을 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40분간 진행되는 특강은 '짧은 한 편의 시가 우리를 위로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로, 이를 읽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들 인간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는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매일캐기연구소 본부장을 역임한 조석중 전주독서동아리연합회장과 시인의 대담을 통해 작품세계 및 집필 비하인드 스토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북 토크 시간을 가진다.

이번 북 콘서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북도청도서관 전화(280-2451, 2452)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짜장면, 나눌수록 그릇이 커진다'

예전에는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면 모처럼의 외식으로 짜장면을 먹었다. 입 언저리에 까맣게 묻은 춘장을 핏물처럼 흘리며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장면의 추억. 그 시절 짜장면 한 그릇은 곧 사랑이고 행복이었다.



▶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29일 남원 선원사 윤천 스님 초대

주지가 된 2009년부터 군부대 등서 봉사 시작

현재 재난지역 포항서 이재민과 봉사자들 도와

무대에 안전성해금밴드 출연

용자, 그리고 맛있는 포만감이 행복 한 웃음을 보여주는 군인들을 보며 의지와 힘이 솟는다고 말하는 윤천 스님은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에서 잠시 세계 짜장면을 만들어 이재민과 봉사자들을 대접하고 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국악콘서트 다담은 29일 오전 11시 예음헌에서 직접 만든 짜장면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남원 선원사 주지 윤천 스님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윤천'이라는 법명보다 '짜장스님'이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진 스님은 1998년 경상북도 봉화의 경량사에서 출가했다. 중앙승가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중국 절강사범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선원사 주지가 된 2009년부터 짜장면 봉사를 시작했다.

'스님 짜장'을 새긴 5톤 트럭에 장비를 싣고 전국 각 지역의 사찰은 물론이고, 성당이나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등 종교에 상관없이 요청만 있으면 짜장면을 만들어 나누고 있는 윤천 스님.

그는 교정시설이나 군부대에 갈 때면 '그곳에서는 가장 먹고 싶어 하는 음식 중 하나가 짜장면'이라며 '특히 마음이 많이 쓰인다'고 말한다.

'짜장면 한 그릇에 감동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출소 후엔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다짐하는 수

대 '우리 음악 즐기' 시간에는 안전성해금밴드가 출연해 '남생이 놀아라' '아리랑스위트' '꿈을 달린다' '약속' 등 전통을 바탕으로 한 친근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음악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안전성해금밴드는 해금연주자 안전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크로스오버밴드로, 양훈정의 25현가야금, 임대성의 콘트라베이스, 조민수의 타악으로 구성돼 있다. 민요부터 가요, 영화 음악, 클래식과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며 우리 음악을 대중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규앨범으로 약속, 꽃길, 디지털 싱글 열(熱)을 발매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차와 더불어 속 깊은 이야기 그리고 마음을 담은 음악이 함께 한 '다담'은 이번 공연을 끝으로 2017년을 마무리한다.

이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http://namwon.gugak.go.kr))과 전화(063-620-2324~5)로 예약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안전금융의 또 다른 이름

MG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가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으로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드립니다.

MG새마을금고

'고창 소리하기 좋은날' 23일 고창문화전당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올해 전북문화관광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창문화의전당 상주예술단체 '국악예술단 고창(高陽)'이 젊은 국악인과 함께 하는 퓨전국악콘서트 '고창 소리하기 좋은날'을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에 고창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한다.

'국악예술단 고창(高陽)'은 2009년에 창단해 2015년 전라북도 지정번호 제 36호 전문예술단체 지정됐으며, 2016년 서울TV·서울신문에서 주최한 제8회 서울 석세스 어워드 문화대상 국악부문 수상 등 저력을 과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열정과 패기로 똘똘한 젊은 국악예술 단체

다.

이번 공연은 고창 지역 내 청소년국악팬버우케스트라 '소리너울' 협연으로 이루어지며, 지휘자 이성구(은소리국악관 현악단 부지휘자)의 지휘로 '전통음악의 현대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국악 관현악곡 '축제' 연주로 시작된다.

공연에 흥겨움을 더 할 뮤지컬 서편제 OST '살다보면', 국악가요 '상사동', 민요를 주제로 한 '아리랑 연곡', 상주모심기를 주제로 한 '삶의 노래' 등도 선보인다.

공연은 6세 이상 어린이를 비롯해, 군민 누구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 무료이며 전석 좌석지정제로 고창문화의전당(063-560-8041~2)에서 현장 티켓 발권을 통해 입장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